



올림픽 중계전 금메달은 'MBC'

2024 파리올림픽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중계 경쟁에 나선 지상파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일 방송된 파리 올림픽 중계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MBC가 1위에 올랐다. 닐슨코리아의 전국가구 기준(이하 동일기준)으로 봤을 때 MBC의 '2024 파리올림픽'은 10.1%, SBS 'SBS 파리 2024'는 7.1%, KBS 2TV '여기는 파리'는 5.9%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는 MBC가 중계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모양새지만, 종목별로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MBC는 양궁 종목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16.5%를, 지난달 29일 열린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10.5%를, 28일 열린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8.3%를 기록하며 타 방송사들을 제쳤다. 스포츠 중계에 잔뼈가 굵은 김성주 캐스터와 2016 리우올림픽 2관왕 장혜진 해설위원이 중계를 맡고 있다. 조준호와 조준현 형제를 해설위원으로 내세운 유도 종목에

시청률 조사 MBC·SBS·KBS 순 MBC 양궁·유도, KBS 사격 SBS, 탁구·배드민턴 강세 서도 MBC가 중계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3일 남자 최종량급에 출전한 김민중이 은메달을 획득한 결승에서 MBC는 시청률 6.8%를 기록했고, 여자 최종량급에 출전한 김하윤이 동메달을 획득한 동메달결정전에서도 시청률 7.7%로 1위에 올랐다. KBS는 사격 종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생중계된 사격 여자 권총 25m 양지인의 금메달 획득 결승 경기는 KBS가 시청률 6.91%를 기록하며 지상파 3사 중 시청률 금메달을 쥐었다. 지난달 28일 오예진, 김예지가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한국 최초로 금, 은메달을 거머쥔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결승전에서도 KBS는 시청률 6.4%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전 사격 국가대표 이대명 해설위원과 이광용 캐스터, 그리고 특별 해설위원으로 나선 코미디언 김민경이 중계를 맡았다. 김민경은 2022년 국제실용사격연맹(IPSC)이 주관하는 사격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SBS는 탁구와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탁구 종목에서는 15년 전 SBS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신유빈 선수와 인연을 맺었던 '탁구 전설' 현정화가 중계를 맡았다. SBS는 지난 1일 신유빈이 일본을 꺾고 한 국 탁구 단식 20년 만에 4강에 진출한 탁구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시청률 8.1%를, 지난 3일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시청률 8.8%로 중계 1위를 차지했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는 배드민턴 해설위원으로 나서 중계의 완성도를 높였다. 안세영이 준결승에 진출한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에서 SBS는 5.5%로 타 방송사들을 앞섰다. 펜싱 종목 중계는 지상파 3사가 접전을 펼쳤다. /연합뉴스



“성과에 집착 버리고 내려놓는 법 터득했죠”

“미션 같은 대사들 소화...작품 성과 만족”

“독하게 버틴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독기 품고 사는 게 스스로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목표했던 성과를 못 내면, 그 모든 노력을 역울해할 정도로 욕심이 많았죠.” 1998년 가수로 데뷔해 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정지훈은 노력 끝에 2000년대 댄스가수로 정상을 찍었고, 아이돌이 주축이 된 K팝 부흥기 이전에 할리우드 영화에 진출하며 '월드 스타'로 우뚝 섰다. 이후로도 꾸준히 무대와 TV를 오가며 가수와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어온 정지훈이 최근에는 글로벌 OTT 디즈니+의 새 시리즈 '화인가 스캔들'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최종회 공개를 기념해 지난 2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지훈은 “이번 작품의 성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과한 욕심은 버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어렸을 때의 독기를 내려놓고, 유연해지자고 다짐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정지훈은 “과거에는 순위나 흥행 성적에 지나치게 연연했는데, 앞으로도 몰볼 안 가리고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화인가 스캔들'은 재벌그룹인 화인가그룹의 며느리이자 전직 골프 선수인 주인공 오한수(김하늘)와 그의 경호원 서도윤(정지훈)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물이다. 정지훈은 친구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 그 배후에 화인가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화인가의 경호원으로 들어가 진상을 파헤치는 경찰 출신 경호원 서도윤을 연기했다. 정지훈은 “속제 같은 대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최대한 작가님이 쓰신 대사를 존중하면서 ‘저 정도면 훌륭하게 잘 해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감하늘 선배님과 머리 맞대고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너 나랑 잘래?”, ‘당신 내 여자 할래요?’, ‘당신이 내 남자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미션과도 같았어요. 오그라드는 느낌도 있었지만, 최대한 시선 처리를 멋있으면서도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 고민했죠. 저도 대사를 할 때 (민망해서) 웃음이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우 진지하게 촬영했습니다.”

아기상어·베베핀, 중남미로 영토 확장

콘텐츠 현지화로 유튜브 조회수·구독자 폭증...남미 앱 이용자 증가율 153%

'아기상어'·'베베핀(사진)' 등을 내세운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지식재산권)가 우리나라와 북미를 넘어 현지화를 무기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더핑크퐁컴퍼니에 따르면 이곳의 공식 스페인어 채널의 조회 수는 전년 대비 300.0% 증가했다. 포르투갈어 채널 조회 수 역시 126.6% 증가했다. 더핑크퐁컴퍼니의 조회 수 '톱 10' 채널에는 4위에 오른 '핑크퐁' 스페인어 채널(약 63억뷰)을 비롯해 '베베핀' 스페인어 채널(7위·약 50억뷰)과 '핑크퐁' 포르투갈어 채널(8위·약 27억뷰 등)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언어 채널이 3개나 포함됐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중동 지역까지 강타한 콘텐츠가 자국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도 사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공개된 차세대 IP '베베핀'은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 밀착형 싱어롱 뮤지컬'을 테마로 삼아

현지에서 호평받았다. '베베핀'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유튜브 채널 가운데 역대 최단기간인 14개월 만에 구독자 1000만명을 돌파해 유튜브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은 데 이어, 2년 만인 지난달 전 채널 누적 구독자 3500만명과 누적 조회 수 175억뷰를 기록했다. 누적 시청 시간은 13억시간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베베핀을 벗은 '베베핀' 오리지널 시리즈는 넷플릭스 아르헨티나에서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멕시코·칠레 3위, 콜롬비아 4위, 브라질 5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베베핀'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은 2022년 12월 첫 영상 게시 이후 58일 만에 구독자 수 10만 명을 넘어 '실버' 버튼을 얻었고, 155일 만에 100만명을 넘기며 '골드' 버튼을 받았다. 지난달 기준 해당 채널은 총 82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베베핀' 포르투갈어 채널 또한 지난해 4월 첫 영상 게시 이후 78일 만에 '실버' 버튼, 298일 만에 '골드' 버튼을 각각 받



았다. 채널 개설 1년여가 지난 현재 구독자 수는 270만명에 이른다. 또 영상과 게임을 결합한 스마트폰 앱 '아기상어 키즈월드'는 지난해 기준 남미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53%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앱은 한국어와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